

멜번대교구한인천주교회

The Korean Catholic Community in the Archdiocese of Melbourne



주임신부 : 윤기선 요셉 (Rev. Kiseun Joseph Youn)
M) 0402 686 560

주 소 : 89 Bond St. Ivanhoe VIC 3079

사목회장 : 최미라 소화 데레사 M) 0404 854 266

사무실 : 월, 수 11am ~ 2pm, 금 11am~3pm

주일미사 : 일요일 오전 11시

Tel: 03 9440 9515, Mob: 0423 532 073

어린이미사: 주일 미사 후 12시 30분

kccmel@gmail.com

고해성사 : 주일 미사 15분 전

kccmel@cam.org.au

주일학교 : 주일 오전 11시

www.kccmelbourne.org.au

예비자교리: Zoom/대면 교리

[www.facebook.com/ Koreancatholic-church](https://www.facebook.com/Koreancatholic-church)

어린이 안전 & 복지에 관한 문제는 Child Safety Officers (3명)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초대

제 1 독서 ㉮ 지혜서 3, 1-9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5, 17-21

<하느님께서는 번제물처럼 그들을 받아들이셨다.>

<죄가 많아진 그곳에 은총이 충만히 내렸습니다.>

화답송

복음환호송 마태 11, 25 참조

시편 116(114—115), 5-6, 10-11, 15와 16ㄱㄴㄹ(◎ 9)

◎ 알렐루야

◎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 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 주님은 너그럽고 의로우신 분, 우리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네. 주님은 작은 이들을 지키시는 분, 가엾은 나를 구해 주셨네. ◎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 “나 참으로 비참하구나.” 되뇌면서도 나는 믿었네. 문득 놀라 나는 말하였네.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

◎ 알렐루야

◎

복음 ㅊ 마태오 11, 25-30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 주님께 성실한 이들의 죽음이, 주님 눈에는 참으로 소중하네. 아, 주님, 저는 당신의 종. 당신이 제 사슬을 풀어 주셨나이다. ◎

영성체송 4에즈 2, 35, 34 참조

주님, 당신은 자애로우시니,
당신 성인들과 함께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전례봉사안내

	11월 2일 (일) (자)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 의 날 - 둘째 미사	11월 9일 (일) (백) 라테라노 대성전 봉헌 축일 (평신도 주일)	11월 16일 (일) (녹) 연중 제 33주일 (세계 가난한 이의 날)
미사 해설	조옥주 안젤라	원선희 안젤라	김지나 노엘라
제 1 독서	정성룡 세례자 요한	박상현 라파엘	청년부
제 2 독서	손은희 크리스티나	조옥주 안젤라	청년부
보편지향기도	배미주 요안나	김지숙 로사	청년부
봉헌	1 반	3 반	4 반
성체분배자	정성룡 세례자 요한	김수환 요한	정성룡 세례자 요한
복사	정태오 다니엘 정지아 루시아, 이유진 스테파니아	박하선 미카엘 한나, 왕서윤 소화데레사	김영광 프란치스코 이성민 다미아노, 이애린 에리카
성가	입당 519 예물준비 232, 211	성체 359, 233, 166	파견 227
미사곡	자비송 : 325 아멘 : 377	보편지향기도 : 370 주님의 기도 : 387	거룩하시도다 : 327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 390 신앙의 신비여 : 373 하느님의 어린양 : 328



참 행복을 희망하는 날

이경상 바오로 주교 | 서울대교구 보좌주교

모든 성인 대축일이 천상 교회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거룩한 영혼들을 기억하는 것이라면, 위령의 날은 세상을 떠난 모든 영혼 특히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 그리고 연옥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신앙인은 오늘 옴기의 옴처럼 하느님을 뵈고 싶어 합니다. “이 내 몸으로 나는 하느님을 보리라.”(19,16) “내 눈은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그분을 보리라.”(19,27) 친구들을 만난 후 옴은 인간의 그럴듯한 왜곡된 가설의 허무함을 깨닫고 이제 더욱 하느님을 뵈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주 성부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 이와 죽은 이의 통교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들의 영혼을 기리고 곧이어 모든 죽은 영혼을 기억하고 아울러 불쌍한 영혼을 특별히 기억하면서 나의 죽음도 응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단해 보이고 내 온 신경을 쏟아붓게 만드는 것들이 죽음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것을, 결국엔 우리 모두 그분을 뵈겠다고 나설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난 영혼들과의 유대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시간의 차이일 뿐 나의 처지일 테니 말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며 그 안에서 서로 온갖 것을 주고받습니다. 죽음 이후의 생명을 믿고 희망하는 교회는 이러한 관계가 세상을 떠난 이들과도 지속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천상 교회와 지상 교회 그리고 연옥에 있는 이들이 하나임을 기억하며, 서로 기도해 주고 영적인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로마서에서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5,5)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그 희망이 실재라는 것을 믿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 덕분에 고통은 한시적으로 지나가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복락은 영원하여 언젠가는 모든 성인 대축일이 우리 각자가 포함되는 축일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결국 위령의 날은 희망을 지니는 날이고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그런 희망을 실천하는 날입니다. 육신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하느님과 일치하는 삶 안에서 일어나는 실제적 사랑의 체험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참된 행복에 실천적으로 도전해 보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지고, 나와 남의 인생의 슬픔을 좀 더 깊이 알고, 온유한 마음을 갖고, 의로움을 추구하며, 자비롭게 사람을 대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 주변에 평화를 이루고, 박해를 무릅쓰고, 모욕당하고 거짓으로 사악한 말을 들어도 즐거워하도록 참 행복에 도전하는 또 한 번의 출발점이 되는 위령의 날로 보내면 좋겠습니다.

† 위령 성월

-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 주님, 제 소리를 들어 주소서.
애원하는 제 소리에 당신 귀를 기울이소서.
- 주님, 당신이 죄악을 해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니
사람들이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 나 주님께 바라네.
내 영혼이 주님께 바라며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 ✦ 기도합시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믿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느님,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어
주님을 섬기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이 바라던 영원한 행복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 아멘.
- ✦ 주님,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 ✦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 ◎ 아멘.



(11월 1일부터 8일까지 정성된 마음으로 묘지를 방문하고,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우들은 연옥에 있는 이들에게 양도할 수 있는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날짜	반 봉 사	안 내
11/2	1 반	반 봉사자
11/9	5 반	반 봉사자
11/16	4 반	반 봉사자

♣ 베드로회 봉사 일정표 ♣		
날짜	봉사	메뉴
11/2	1 반	커피/티/비스킷
11/9	5 반	커피/티/비스킷
11/16	4 반	커피/티/비스킷

◆ 본 당 단 체 모 임 안 내 ◆			
단 체	일 시 및 장 소		문 의
사 목 회	매월 넷째 주일		최미라 소화 데레사 0404 854 266
반장 모임	매월 첫째 주일		김도훈 요셉 0433 228 075
대철 베드로 복사단 어머니회	추후 공지		손은희 크리스티나 0433 242 390
마니피캇 성 가 대	주일 미사 전 커뮤니티 홀 10:15am 까지		문소영 소피아 0406 174 746
청 년 부	추후공지		박영주 글라라 0451 988 047
주일학교	매주 미사 후 커뮤니티홀 및 사제관		임연희 보나 0457 258 066
주일학교 자모회	추후공지		김나영 안젤라 0423 094 789
레지오 마리아	꾸리아 자비의 모후	추후 공지	+
	천상의 모후	추후 공지	전수련 엠마누엘라 0423 614 598
	위로자의 모후	추후 공지	박영주 글라라 0451 988 047
성서반	매 주일 Zoom 8pm		왕현경 스텔라 0421 700 386
연령회	추후공지		조옥주 안젤라 0430 282 737
어린이 복지회	추후 공지		최미라 소화 데레사 0404 854 266 이상원 베네딕토 0403 189 387

11월 반 모임 안내 요한 2,13-22		
반	일시 / 장소	반장 연락처
1반	11월 9일 (일) 12:30pm 성당 도서관	박비주 세실리아 0430 527 837
2 & 7 반	11월 8일 (토) 6:30pm Zoom	김도훈 요셉 0433 228 075
3 반	11월 14일 (금) 6:00pm 오형남 알베르토 가정	김장현 라자로 0451 155 551
4, 6, 8 반	11월 14일 (금) 8:00pm Zoom	김수환 요한 0433 800 461
5 반	11월 14일 (금) 7:00pm Zoom	이승은 루시아 0431 208 178
6 & 8 반	4반과 함께	김수환 요한 0430 217 100
7 반	2반과 함께	김도훈 요셉 0433 228 075

♥ 우리들의 정 성 ♥			
	10월 12일	10월 19일	10월 26일
헌 금	\$652.20	\$464.10	\$561.30
교 무 금	\$1,950.00	\$300.00	\$330.00
감사헌금	+	+	+
합 계	\$2,602.20	\$764.10	\$891.30
성모동산 기금	\$33,069.51	\$33,069.51	\$33,069.51
☺ 감 사 합 니 다 ☺			

교무금 납부자



한경의 토마스 & 윤나리 클라우디아
오형남 알베르토 & 오문자 베네딕타
김장현 라자로 & 송민경 세라피아
여신 안드레아 & 손은경 아네스

교무금 납부는 가톨릭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교무금은 재정부(박상현 라파엘)를 통하여 책정하십니다.
0478 510 331 kccm.treasury@gmail.com

- ▶ 교무금은 매 주일 미사 전 성당 입구 테이블, 미사 후 사무실 에서 접수합니다.
- ▶ 교무금을 성당계좌로 보내실 때는 Reference에 보내신 분의 성함을 반드시 기재하십니다.

A/C Name: Korean Catholic Community
Bank:CDF(NAB) BSB:083347 A/C No: 574926224

◆ 2025년도 사목 방침

‘순례와 친교’

◆ 오늘의 봉사

미사안내는 1반 입니다.

미사 전) 미사 안내와 간식 준비

미사 후) 뒷정리

◆ 본당 신부님 휴가 안내

일정) 10월13일(월)~11월13일(목)
신자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일 미사는 장 스켈런 신부님
과 김현직 토마스 신부님께서 집전
해 주십니다.

◆ 2026년도 매일미사 신청 안내
정기구독 기간) 2026년 1월~12월
-매일미사(소): \$70
-매일미사(대): \$100
신청 마감일) 11월 2일(일)
신청) 사무실 또는 조옥주 안젤라



◆ 위령성월 묘지방문

일시) 11월2일(일) 오늘 미사 후 1시
30분까지 아래 장소로 와주시기 바랍니다.(점심은 묘지에서)

장소) Altona Memorial Park, Court
of four seasons, Zone 4

◆ 예비자 교리 교육

세례식) 12월 25일 (목요일)

교리) 매주 일요일 8pm Zoom

신자분들은 기도와 전교에 힘써주
시기 바랍니다.

일 시	행 사 일 정	성 당 오 시 는 길 <MELWAY31 D6>
11월 2일(일) 11월 9일(일)	미사 후 묘지 방문 평신도 주일	[250번 버스 (월요일~일요일 운행)] 승차: Queen St/ Lt Collins St Lonsdale St, Exhibition St

< 위령성월 전대사 안내 >

전례상식

가톨릭교회는 전 세계에서 공통으로 바치는 전례력에 매년 11월 2일을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로 정하고 먼저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날을 전후한 11월 1일부터 8일까지 전대사(全大赦)의 은총을 부여합니다. 가톨릭교회는 죽은 모든 이들이 천당에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통적으로 죽은 이를 위한 기도를 열심히 해왔습니다. 식사 후에 바치는 기도에도 죽은 영혼이 평화의 안식을 누리기를 바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대사는 교회가 정한 조건을 채우면 잠벌을 면해 주는 것(교회법 제992조 참조)입니다.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았어도 죄에 따른 벌, 곧 잠벌(暫罰)은 여전히 남습니다. 잠벌은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보속을 통해 사면될 수 있는데 이 잠벌을 면제하는 것이 대사입니다. 대사는 교황이나 주교들이 줄 수 있으며, 벌을 전부 없애 주는 것을 전대사(全大赦, indulgentia plenaria), 일부를 없애 주는 것을 부분 대사(部分大赦, indulgentia partialis)라고 합니다. 대사는 죄 자체를 사면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일반 교과서에서 사용하는 ‘면죄부’라는 용어는 잘못된 번역입니다.(천주교 용어집)

전대사를 받으려면 먼저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의 지향에 따라 바치는 기도 등 3가지 조건을 우선 충족해야 합니다. 교황의 기도 지향 : 자살 예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살 충동을 겪고 있는 이들이 그들 공동체에서 필요한 지지와 돌봄과 사랑을 받고, 생명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열 수 있도록.(2025년 11월 기도지향). 특별히 위령성월 기간에 부여된 전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죽은 신자들을 위하여

1. 아래와 같이 하는 그리스도 신자에게는 연옥에 갇힌 영혼들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전대사**가 수여된다.

- 1) 11월 1일부터 8일까지 어느 날이든 묘지를 경건히 참배하여, 또는 마음만으로도, 죽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신자,
- 2)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 곧 죽은 모든 신자를 기억하는 날에 (또는, 교구장이 동의하면, 그 앞이나 뒤에 오는 주일에, 또는 모든 성인 대축일에) 성당이나 경당을 경건히 방문하여 거기에서 주님의 기도와 신경을 바치는 신자.

2. 아래와 같이 하는 그리스도 신자에게는 연옥에 갇힌 영혼들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부분 대사**가 수여된다.

- 1) 묘지를 경건히 참배하여, 또는 마음만으로도, 죽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신자,
- 2) 위령 성무일도의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 또는 영원한 안식을 비는 기도를 경건히 바치는 신자.

<p>물리치료 Physiotherapy Clinic 곽민경 비아 0402 048 412</p> <p>디스크, 관절염, 어깨통증 필라테스: 임산부, 체형교정 코어트레이닝 HICAPS 청구 가능 (GP 소견서, 개인보험)</p>	<p>음악 개인 레슨</p> <div>  피아노 하미경 루시아 0420 556 031 </div> <div>  바이올린 하미현 모니카 0451 996 032 </div>
<p>Chimac the Korean Bistro 전영은 카타리나 0415 786 768</p> <p>K-BBQ & Fried Chicken 95 Upper Heidelberg Rd Ivanhoe VIC 3079</p>	<p>엑심 국제 물류 장석일 에릭 0420 934 061</p> <p>수출입화물 국제운송 및 통관  exim@eximex.com.au www.eximex.com.au</p>